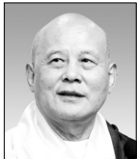


일 주 문



대승보살계 대법회 봉행
조계종 전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3월 21일 안산 쌍계사(주지 항명)가 봉행하는 대승보살계 대법회에 전계대율사로 법문한다. (032)886-2110



선학원 중앙선원 참나를찾아서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은 3월 16일 전 화계사 국제선원장 현각 스님 초청 생활 속 선 수행 '참나를 찾아서'를 봉행한다. (02)732-3327



인드라망 귀농 동참자 모집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표 도법 스님은 3월 23일까지 제24기 실상사 귀농학교 동참자를 모집한다. (063)636-4325



불례협 찬불을동제 참가자 모집
불교예악회연합회 회장 도경 스님은 3월 24일까지 찬불을동제 참가자를 모집한다. (02)738-7860



대불총 민족화합대회 봉행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 의륜 스님은 3월 23일 육전명가 연회장에서 민족화합평화기원불교도대법회를 봉행한다. (02)837-2003



대각교단 금강보살계 봉행
대각교단 금강보살계 봉행위원회 위원장 능인 스님은 6월 18일 대구 호탈인터불교 엑스코국제연회장에서 금강보살계를 봉행한다. (053)325-5288



문화재청 문화재안내관
이건무 문화재청장은 3월 9일 사찰 등 12개 주요 문화재 안내를 담은 '문화재 안내관 가이드라인 및 개선 사례집'을 발간·배포했다.



평화리더십 아카데미 개강
윤여준 평화리더십 아카데미 교장은 3월 25일 제2기 평화리더십아카데미를 개강한다. (02)581-05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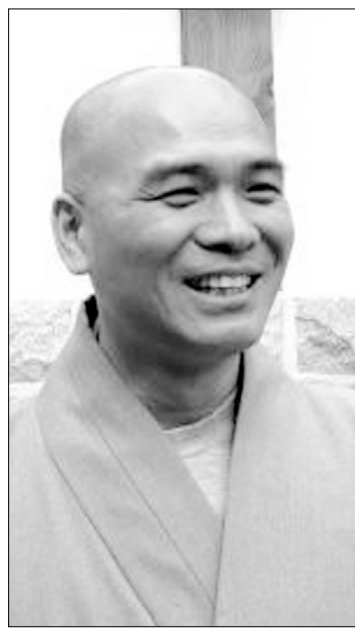
삼성유지엄아카데미(SMA) 개강
김종규 조계종 중앙신도회 교문은 3월 17일 삼성출판박물관에서 삼성유지엄아카데미(SMA)를 개강한다. (02)394-6544



윈디스프링 콘서트 개최
불자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은 3월 17일 5집 음반을 발매하고 27-2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2010년 제3회 윈디스프링 콘서트를 개최한다.

“시민사회운동 본 모습 찾겠다”

실천승가회 신임대표 퇴휴 스님, 10주년 맞아 새 길 제시



“상식을 만들고, 상식이 통하는 조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성찰을 바탕으로 긍정적·합리적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3월 5일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이하 실승회) 신임대표에 선출된 퇴휴 스님(사진)은 8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NGO로의 새 길을 제시했다.

퇴휴 스님은 “종단 민주화, 시민사회운동의 호시인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그동안 불교계 개혁의 원동력으로서 큰 성과를 냈다”며 실승회 10년을 자랑했다.

이어 스님은 “종단 인권의 기대가 높은 만큼 실승회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과거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모습에서 벗어나 시민사회 NGO로의 본 모습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종단 정치에 영향을 미쳐왔던 실승회의 변화에 대해 스님은 “NGO의 성격은 다양하다. 승가단체인 만큼 승가단체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균형적인 시각으로 불교계 외곽을 견고히 한다는 측면에서 사회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실승회는 2010년 △‘불교미래사회연구소’ 위상 강화 및 정책

개발 △로터스월드 미안마 지부 개설 및 국내외 복지활동 다각화 △사회참여사업 확대 △재정 자립도 확립 △5개년 프로그램 등 장기비전 마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불교계 인력의 다양한 단체들과 함께 연계한 사업이 진행된다. 국제구호사업 분야에는 로터스월드(이사회장 성관)와의 연대를 통해 생활 밀착형 구호활동이 펼쳐 예정이다.

퇴휴 스님은 “실승회의 국제지원사업이 지금까지는 인프라 구축단계에 머물렀다. 향후 그 지어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진행 중인 아동센터 지원사업을 미안마에 확대하는 한편 북한어린이들이 운동을 펼칠 것도 밝혔다.

이 밖에 실승회는 대외적 활동에 앞서 내외 역량 강화를 위한 회원조직화도 전개한다. 그중 회원스님들의 윤리정규는 불교계 단체의 정체성을 밝히는 잣대가 될지 관심을 모은다.

스님은 “향후 5년간 200명 수준으로

회원 수를 늘리고, 장학사업과 해외산하기관 연수 등을 전개해 조직의 내실을 다지겠다. 또 ‘회원 윤리 정규’를 신설해 조직의 청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퇴휴 스님은 1971년 동화사 입산 출가해, 1977년 사미계를 수지하고, 1982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1995년 태국 왓 박남사에서 남방불교 수행을 한 스님은 1980년 동국대 선학과 입학, 1989년 동국대 교육대학원 철학교육 전공했다. 2002-2004년 경희대학교 NGO대학원에서 NGO정책관리를 전공했으며 2007년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실천불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스님은 1992-2000년 실천불교전국승가회 포교분과위원장, 2005-2009년 조계종 포교연구실 연구위원,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을 역임했다.

퇴휴 스님은 현재 동국대 선학과, 중앙승가대 외래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상연 기자 un82@buddhapia.com

64주기 추모제
고경당 법전 스님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은 3월 11일 문도스님 100여명과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고경당 법전 대종사 64주기 추모다례제’를 봉행했다.

이날 추모다례제는 사시불공을 시작으로 해국 스님의 행장 소개, 동곡문도대표 혜인 스님, 본사주지 돈관 스님의 인사말, 헌다 순으로 진행됐다. 다례제에는 혜인, 혜인, 화산 스님 등 사부대중 400여명이 참석했다.

혜인 스님은 “본사 중심으로 화합하고, 각자 수행에 정진하자”고 말했다. 고경 스님은 일타 스님의 스승으로 1883년 경나을주에서 태어나 14세에 통도사에서 출가해 26세에 통도사 강백에 추대됐다. 남방대강사로 명성을 떨친 스님은 1946년 1월 27일 열반했다.

순법현 대구지사장

학인 스님들에
장학금 전달

능인선원(선원장 지광·사진) 능인 장학회는 3월 14일 능인선원 대법당에서 동국대(총장 오영교)와 능인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능인장학금은 총 1000만원으로 동국대 재학 중인 학인스님 10명에게 전달됐다.



능인장학회는 1987년 발족한 이래 지금까지 학인스님 등 780여 명에게 총 15억 4천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동국대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스님 7명과 동국대 정각원에서 불교청년지도자로 활동하는 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지광 스님은 “앞으로는 대학생 인재를 키우는 데 더 신경 쓰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東大에 장학금 전달
일념장학회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손동진)는 3월 9일 교내 백주년기념관에서 일념장학회(이사장 이영채)로부터 장학금을 전달받았다.

이날 통해 통도사 범어사 운문사 등 13개 사찰의 추천을 받은 동국대 재학생 15명은 1500만원의 장학금을 받고 학원정진을 다짐했다.

이영채 이사장은 “통도사 극락암에 주석했던 경봉 스님의 뜻을 받들어 불교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여러 분들이 금강석 같은 훌륭한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동진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귀중한 정재를 기부해 주신 고귀한 뜻을 받들어 불교 세계화와 불교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념장학회는 1971년 이영채 이사장을 중심으로 11명의 불자들이 불교인재 양성에 뜻을 두고 설립해, 승가대학 및 종합학교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조동섭 기자

“출범 10년 발판삼아 100년 준비할 것”

임희웅 포교사단장, 탈북자·다문화가정도 포교계획

“지난 10년을 발판삼아 100년을 내다보는 포교사단의 밑그림을 그리겠습니다.”

포교사단 출범 10주년 기념법회를 앞두고 임희웅 포교사단장(78·법명 정혜)은 3월 11일 “포교사단의 체계적 포교활동에 전력 투구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임 단장은 “앞으로 조직을 개편해 각 지역 포교사들이 능률적으로 포교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포교사단은 향후 포교현대화를 위해 중앙과 지부 포교팀을 잇는 정보망을 구축하고, 행정체계를 일원화시킬 방침이다.

그동안 조계종 포교사는 1982년부터 배출됐지만 중심기구가 없어 개인 재양성에 뜻을 두고 설립해, 1996년 정식 조계종 포교사고시로 전환 이후 2000년 3월 12일 체계적인 포교활동을 위해 설립된 조계종 포교사단은 불법홍포의



일선에서 앞장 서왔다. 포교사 고시 1회 합격자인 임 단장은 이러한 포교사단 포교역사의 산 증인이다. 신형의 등불이 처처에 밝히기를 서원한 임 단장은 제 1회 포교사고시에 합격해 1996년 64세라는 나이에 포교사가 됐다. 동산불교대학 졸업과 동시에 포교사 자격을 뽐수한 그는 2007년 전문 포교사 고시에도 합격, 십 수 년 동안 포교 사

각지대에서 부처님을 법을 전하고 그 가르침을 오롯이 실천한 결과 제19회 포교대상 원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임 단장은 현재도 <법화경>의 상불경 보살품을 마음에 품고 생활한다.

임 단장은 “포교사단이 창립 초기부터 군포교와 교도소 교정교화 활동에 매진해왔다. 앞으로는 탈북자(남북관계)와 다문화가정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포교해 우리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임 단장은 끝으로 “포교사는 상불경(常不輟) 보살의 화신이 되어 한다. 불자는 하는 말, 행동거지 등 삶의 모습 그 자체가 포교임을 명심해야한다”며 불자들의 정진을 당부했다.

한편 창립 10주년을 맞은 포교사단은 3월 14일 서울 동국대에서 기념법회를 연다. 기념법회에서는 10년간 근속한 300여 포교사와 우수 포교사에 대한 시상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박선주 기자

Advertisement for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featuring educational cours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Advertisement for 'Cheongdongbulsang Joosungjeonmun' (청동불상 조성전문) featuring Buddhist art exhibition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artist.